

(가칭)경기 문화예술 대축제 TF 3차 회의('22.01.21)

□ *****

- 생활예술인 참여 여부,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지원, 시군별·단체별 참여종목, 참여단체들에 대한 인센티브, 개최지 선정 방법, 개최 일정 등 검토
- 도민들과 청년예술인들을 기존 정책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담아내면 가장 발전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
-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에서는 사전에 참여해서 의제를 탐구,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청년 참여형 네트워크 방식, 하나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동시대의 이슈들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장르 파괴 형식을 제안했음
- 장르 중심으로 개최한다면 예총 등 기존 협회들이 진행하던 행사를 답습하게 되고 2~3년이 지나면 식상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행사가 될 우려가 있음
-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을 경기도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관객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인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대상을 국내·외로 넓힘으로써 도민들에게 질 높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
- 축제의 예산은 문화시설을 위한 예산보다 실제 운영경비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, 토론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은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을 어떤 방식으로 축제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임
-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프린지 페스티벌을 모델로 삼아 경기도에 맞게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음
- 밀리터리 타투가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듯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전통 프로그램과 청년들의 무경계·다양한 새로운 행위예술이 결합하는 방식
- 기존 축제와는 다르게 내용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지역 이슈를 담아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 필요

□ *****

- TF 회의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장단점을 도출하고 검토의견을 모으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자문조정 기구임, 이러한 의견들을 잘 정리한다면 향후 연구용역 연구범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됨

□ *****

-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최고 수준의 고급 예술행위들을 펼치는 것이고 추가로 프린지 페스티벌을 같이 함,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도 같은 방식임
- 이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경기예술대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 예술페스티벌은 축제의 앞 또는 뒤에 개최하는 행사로 구성할 수 있음
- 경기도로 한정해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, 국내·외로 범위를 넓혀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인다면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발전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음

□ *****

- 전국민속예술축제는 16개 전국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며, 추진위원회는 도 단위로 운영하고 사무국은 당해연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이 경우 운영의 편의성은 있지만 확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
- 장르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단체인 예총, 산하단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기존의 행사와 차별성이 없음
- 도 단위 체육대회 우승을 하면 전국대회를 나가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보상이 있지만 예술 분야는 이와 다름
- 시립예술단, 수원화성예술단, 국악관현악단 등 지자체의 전문예술단들과 함께하는 도 단위의 축제를 개최한다면 운영예산은 10~20억 정도 예상됨
-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을 보다 상위개념의 축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며, 청년 분야를 별도로 공모하고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주제를 제시한다면 가능할 수 있음

□ *****

- 체육대회 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은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쟁이나 일부의 형식적인 부분만 차용하는 것이지 그대로 가져오면 안됨
- 청년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참가대상, 형식, 콘텐츠 면에서 매우 참신하며 자유로운 발상을 담아내는 방식이 시사하는 바가 큼
- 연구용역에서 나온 하나의 경기도형 축제 모델 플랫폼 안에 청년예술 프로젝트 분야를 넣어서 이것을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음
- 경기도가 주최하고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적기구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유연하

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이 됨

- 개최하는 지자체에서 직접 주제를 정하고 추진한다면 매회 행사가 색다르게 다양한 색깔이 담겨질 것이고, 해당 지자체의 기획자가 자유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과정은 그 지자체의 자산이 될 수 있음
- 추진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는 유연한 방식에 제한요소가 될 수 있으며,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좋음

□ *****

- 만약에 좋은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목적을 우선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운영방식들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음
- 오늘 발제한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은 일탈행위로서의 기능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, 청년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 자유로운 가치관이나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면 좋겠음

□ *****

- 경기예술대축제를 기획하는 목적은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만의 예술대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
- 경기도 24개 시군이 98개의 축제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, 경기도 체육대회와 같이 모든 시군이 모이는 예술 분야의 한마당 축제는 없음
- 체육대회 형식이라는 것은 31개 시군을 일년에 한번씩 순회하고 2~3년 전에 개최하는 시군을 정해서 문화시설 투자를 먼저 하고 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임
- TF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고 다음 단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모든 내용을 담아 축제를 설계해야 함
- 제1회 축제를 개최한다면 예산은 50~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, 우선 경기예술대축제 설치·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 틀을 만들어야 함
- 이후 실질적인 운영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

□ *****

- 정책적으로 기획된 공급형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별도의 세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체의 트랙과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함
- 청년예술페스티벌은 청년예술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제를 발굴하

고 그 의제로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말해주는 것임

- 경기도는 중앙이 아니라 무중력 상태의 경계이기 때문에 늘 실험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며, 이것이 바로 실학정신이고 프런티어(지금까지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미개척지) 정신임
- 경기도의 기전문화 정신은 전통예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청년의 정신이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며, 이러한 에너지를 경기도가 잘 활용해야 함
- 예를 들면 기존 문화도시에 그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공간들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, 그러한 공간들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면 선순환 구조를 지닌 우리 축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
- 경기도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대표 예술축제를 새롭게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축제 패러다임을 문화예술 향유에서 지역의제를 발굴하는 참여형으로 바꾼다면 지역순회가 가능해질 것임
- 문화예술 향유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의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을 예술가(단체)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음